

名士기 권이는 안 권의 책

大學中庸

양 주 승
영종면 자치위원장



《대학(大學)》《중용(中庸)》은 《논어(論語)》《맹자(孟子)》와 함께 '사서(四書)'로 불리며 유학의 주요 경전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 두 책은 전통시대 특히 성리학 성립 이후 사대부가 유학을 배울 때 읽던 기본 교재였으며 오늘날에도 유학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텍스트로 남아 있다.

《대학》의 저자는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자(曾子)와 그 문인으로 알려져 있고, 《중용》의 저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라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한다.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禮記)》 49편 중 42번째, 31번째 편이었다.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은 이 두 편을 각별하게 여겼는데, 특히 송나라 시대 주희(朱熹)가 《논어집주(論語集註)》 및 《맹자집주(孟子集註)》와 함께 《대학장구(大學章句)》와 《중용장구(中庸章句)》를 저술하면서 흔히 말하는 '사서 체계'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과 《중용》을 함께 거론한다는 것은 주희가 확립한 '사서 체계'에 따라 두 문헌을 다룬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이다.

'사서'의 체계에서 《대학》과 《중용》은 유학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과 마지막 관문으로 간주된다. 《대학》은 대인(大人), 즉 군주 또는 위정자를 위한 학문으로 삼강령(三綱領·세 가지 강령)과 이를 실현하는 팔조목(八條目·여덟 가지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강령은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德·明明德), 백성을 진애하는 것(親民·親民),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지 어지선·止於至善)이다. 이는 군주 또는 위정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밝히는 것이다. 여덟 가지 조목은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 강령에 제시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은 개인의 자기 수양과 전체 사회의 문제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로 이런 특징이 유학자들이 《대학》을 유학의 입문서로 간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대학》을 통해 유학에 입문하면 《논어》《맹자》를 읽고 끝으로 《중용》을 읽는다. 《대학》이 유학이 지향하는 바와 그 과정 전체의 윤곽을 잡는 책이라고 한다면 《중용》은 이론적인 핵심을 확인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책인 것이다.

주희는 《중용》이라는 책 제목의 '중(中)'에 대해 치우침이나 과불급이 없는 것이라 설명하고 '용(庸)'에 대해서는 일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곧, 치우침이나 과불급이 없는 인간의 성을 일상에 구현하는 일로써 《중용》을 이해한 것이다.

나이가 《중용》은 한 개인의 심성과 일상생활의 수많은 문제가 하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학》이 유학의 지향점과 실천 과정을 제시함에 개인과 전체 사회를 연결시킨다면, 《중용》은 한 개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일상생활과 삶의 도덕적 근원인 하늘을 중시시키는 것이다.

《대학》《중용》에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편은 본문과 주희의 주석을 완역한 것에 역주를 첨부한 삼백호 선생의 《대학·중용집주》(전통문화연구원·1991)를 먼저 읽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동탁구클럽 양재영 선수 우승

생활탁구교실을 개설한지 2년만에 공식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국민생활체육일동클럽(회장 신영미) 양재영(37)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양 선수는 지난 9일 서울북부지역과 경기지역에서 클럽과 동호회 대표 선수 16개조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국민생활체육의정부시연합회장기 탁구대회 개인 일반3부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까지 하루에 8번의 토너먼트 게임을 전승으로 장식하며 승승장구해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일동생활체육교실이 열리고 불과 2년만의 이른 빛나 놀라운 결실이다.

양씨는 우승소감에 대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일동클럽 회원님과 성심으로 지도해주신 양화실 지도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할 생활체육탁구교실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조해 준 부인에게 영광을 전했다.

일동탁구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인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의 분위기가 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생활탁구교실을 개설한지 2년만에 공식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국민생활체육일동클럽 양재영 선수(가운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가 좋기로 유명하며 탁구를 통해 즐거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동탁구클럽을 지도해온 양화실(사진) 지도자는 "양 선수는 어릴 때 잠깐 탁구를 시작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열심히 탁구를 즐긴 결과 좋은 성적을 내게 됐다"고 밝히고 "일동클럽 30여명의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연습에 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심터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봄의 길목에서

추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지만 봄의 날씨는 항상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도 크다.

그래서 봄은 오히려 겨울보다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봄에는 많은 병들이 찾아 온다. 심한 일교차로 인한 갑기부터 시작해서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 또 야외활동에 의한 피부관리, 또 춘곤증까지 많은 부분이 신경을 써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때문에 겨울보다 봄은 유난히 부지런해야 한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옷도 여벌로 준비 해두어야 하고, 황사나 알레르기 때문에 외출 후 돌아오면 더 자주 씻어 줘야 한다. 좀 따뜻해 졌다고 서둘러 겨울옷을 집어넣거나, 게으름을 떨다가는 질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보통 봄을 희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희망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고통과 고난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고 생명의 희망이다. 말 그대로 희망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하지만 희망 속에는 여전히 뜻하지 않는 매서운 추위가 있다. 희망이란 여전한 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열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희망의 등불을 더 밝히기 위해 우리는 더욱 전진해야 한다. 더욱 부지런해야 한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조합원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소흘농협 67명 3천350만원 전달식



소흘농협합동조합은 지난 10일 소흘농협 강당에서 2006년 조합원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은 이날 참석한 소흘농협 이사들이 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소흘농협합동조합(조합장 박범중)은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 소흘농협 강당에서 2006년 조합원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합원이 학생을 대신해 참석했으며 조합장이 대표에게 전달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장학금 67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3천350만원이다.

박범중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는 변화하고 변화되는 생활 속에는 학생들이 현실에 잘 적응하고 대응해 내일을 준비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주 포천시의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협의 환원사업 차원에

- (아주대학교) ▶정지선(천안연암대학) ▶김혜란(성신여대) ▶고선종(강남대학교) ▶김진명(대전대학교) ▶김승걸(강원대학교) ▶김보라(경북대학) ▶황이슬(대전대학교) ▶안재현(한국폴리텍1대학) ▶안성룡(대전대학교) ▶장진진(대전대학교) ▶김혜진(신흥대학) ▶이말형(서울기능대학) ▶홍정기(대전대학교) ▶노혜지(서울산업대학교) ▶위지원(대전대학교) ▶이미진(송의여자대학교) ▶이태우(동국대학교) ▶최백규(경북대학) ▶홍새봄(경북대학) ▶이운재(대전대학교) ▶태지혜(중앙대학교) ▶이혜정(이화여자대학교) ▶조은하(신흥대학) ▶이지혜(동남보건대학) ▶박준(경북대학) ▶윤성렬(상지영서대학) ▶이현주(명지전문대학) ▶노시중(현대전문대학) ▶박기태(삼육대학교) ▶황선희(단국대학교) ▶이민구(전남과학대학교) ▶이미숙(남서울대학) ▶이준구(인덕대학) ▶한상훈(경북대학) ▶유정미(서경대학) ▶이재민(경북대학) ▶이주일(동서울대학) ▶고두환(관동대학교) ▶이준형(신흥대학) ▶박병훈(인천전문대) ▶박호범(경북대학) ▶이수영(경기공업대학) ▶이진구(경북대학) ▶신한성(경북대학) ▶박소라(경동대학) ▶박지은(명지전문대) ▶신운섭(동국대학교) ▶박희정(서울보건대학) ▶유혜란(신흥대학) ▶홍지은(부천대학) ▶이기선(신흥대학) ▶차경선(경북대학) ▶김학주(신흥대학) ▶박지연(신흥대학) ▶서동인(강원대학교) ▶이미정(경북대학) ▶남주석(한남대학교) ▶김미선(한성대학교) ▶이기민(대전대학교) ▶김봉주(서원대학교) ▶백소희(인덕대학) ▶유동현(송실대학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수조합원 자녀학자금 지원

포천축협 31명에게 2천800만원 전달



포천축협합동조합은 최근 2006년 우수조합원 자녀학자금 전달식을 갖고 조합원 자녀의 면학의지를 고무시켰다.

- (안성대) ▶권경순(포천고) ▶김규봉(일동고) ▶박희수(정의고) ▶장영준(일동고) ▶조진주(포천고) ▶한상명(포천고)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소비 하락으로 인해 쌀 판매가 부진해져서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내 고향 쌀 먹기운동에 나섰다.

“고향 쌀 애용합시다”

가산초 총동문회 쌀 먹기운동 전개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소비 하락으로 인해 쌀 판매가 부진해져서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내 고향 쌀 먹기운동'에 나섰다.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유인선)은 지난 3월31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내 고향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4월7일 고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중요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쌀 팔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동문회는 가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총 8천여명으로 추산하고 포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천여명의 동문들을 대상으로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인선 총동문회장은 43년전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양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 회장은 가산농협이 쌀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문회 장단을 설득, 우리쌀 먹기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유 회장은 이번운동을 통해 그동안 20kg 500여포를 판매했

다. 동문회가 설정한 쌀 판매목표는 5천800포라고 한다. 쌀을 판매하면서 유 회장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말에 '고향 쌀 먹기운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양말샘을 1천200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는 가산과 소흘, 포천 등 식당을 방문해 우리고장 쌀 먹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동문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유인선 회장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소비 감소로 쌀 문제가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총동문회는 남아있는 고향 쌀 처리문제를 고민하다가 동문들이 고향 쌀을 소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유 회장은 "8천여 동문들이 동참하게 되면 가산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은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국군장병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북면 훈련 복귀부대 환영 현수막물결

최근 영북면 거리에는 '국군장병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 아외기동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부대장병들을 환영하고 있다.

3월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강원도와 이천, 양평 등지에서 군단급 아외기동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영북면 주둔 10여개 부대 장병들을 지역 각급기관단체가 현수막을 걸고 환영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에는 영북면 배상택 면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이 강원도 횡성에서 훈련중인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주둔부대 격안기가 돋보였다.

21연대 정용택 주임원사는 "환경 현수막을 보니 그동안 훈련중 쌓인 피로가 한 순간에 다 풀리는 느낌"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배상택 영북면장은 "일선 군부대에 사자 지역주민을 위해 농사철 대민

지원 및 의무탁도인지원, 지역의 어려운 일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수막을 내건 기관단체는 ▶영북면사무소(면장 배상택) ▶의용소방대(대장 정해균) ▶체육회(회장 안천중) ▶산정초수관공제회(지부장 주영국) ▶이조합협의회(협의회장 용희중) ▶택시부회(회장 전자봉)등이다.

이번 훈련은 1기갑여단 및 예하부대 1천여명과 8사단 21연대 장병들이 강원도 횡성과 경기도 이천, 양평 등지에서 군단급 철군, 황군 오행 최초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훈련에 참가하여 뛰어난 훈련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미경 주부령에지자단 영북면지부장 hsc5333@hanmail.net



최근 영북면 거리에는 '국군장병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 아외기동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부대장병들을 환영하고 있다.